

인생은 수레바퀴다.

Life is like a wheel. Sooner or later, it always come around to where you started again. (Stephen King)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다. 곧, 바퀴는 항상 원래의 자리로 되 돌아온다. (스티븐 킹)

미국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Stephen King)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먹고살기 위해 세탁공장의 인부와 건물경비원을 지냈습니다. 얼마간 영어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으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큰 출판사를 만나 장편소설을 출판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유명 작가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작가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 최고 작가 중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쓴 작품들이 가장 많이 영화로 만들어져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수레바퀴는 한 바퀴 돌게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레바퀴는 등글어서 계속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야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있을 때가 있고,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좋아질 때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좋을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꿈과 희망을 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수레바퀴입니다.